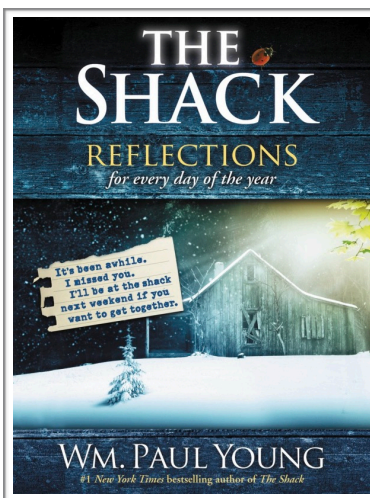




스물여덟번째 이야기

영화 ‘오두막’(The Shack)을 보고



10여 년 전 쯤 읽었던 책이 드디어 올 봄에 영화로도 나왔다. 언제 읽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꽤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 때의 감동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을 만큼 무척 흥미로운 책이었다. 순모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적극 권했던 기억이 있다. 익숙한 내용과 있을 법한 신앙의 여정을 다루고 있었지만 조금은 낯선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었다. 특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치 동화처럼, 그러나 전혀 동화 같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어쩌면 이처럼 감동적인 소설이 10년이나 지난 지금 영화화 된 이유는, 아마도 세 분 하나님 등 소설에서는 글로 자유롭게 표현했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며 분위기 등을 영상으로 어떻게 소화해낼 지 곤란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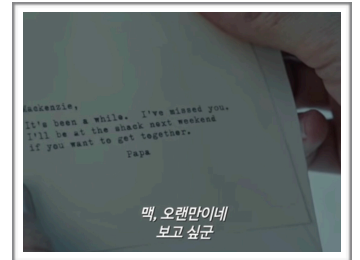
하버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에서 성부 하나님을 중후한 흑인 여자(파파)로, 성령 하나님을 요령의 젊은 여자(사라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

도를 발랄한 청년으로 묘사한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대목일 것이다. 물론 주인공 맥도 그러한 혼란을 겪었다.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야기의 발단은 주인공 맥의 막내딸 미시가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됨으로 펼쳐진다. 캠핑장에서 잠깐의 부주의들이 겹쳐져 어린 막내딸은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되고, 며칠 후 깊은 산 속 오두막에서 살해의 흔적만을 남긴 채 사라진다. 가족들은 시체도 못 찾고 빈 관으로 장례식을 치루게 된다. 너무나 특별하고 영특하며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막내였기에 더욱 그 슬픔은 주체할 수 없었고 주인공 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다 어그러졌다. 풀어내지 못한 슬픔과 원망으로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남은 두 남매는 위축된 채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몇 년간 위기상황이 깊어 가던 중에 한 통의 편지로 전환점이 시작된다. 눈이 내리던 날, 어떤 발자국의 흔적도 없이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놓인 것이다.



“맥, 오랜만이네. 보고싶군. 다음 주말에 그 오두막에 있을 테니 만나려면 와 보게. 파파로부터.” 사건 현장의 오두막으로 와 달라는 ‘파파’로부터의 초대장이었다. ‘파파’는 그의 아내가 즐겨 부르던 하나님에 대한 애칭이다. 누가 장난한 것인지도 의심해보지만 결국 맥은 몇 년 만에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다. 도중에 40톤의 트럭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장면은 결국 이야기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된다. 몇몇 장면을 지나 맥은 동화 같은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맥이 아니라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 찾아간 오두막에서 맥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도 세 분이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무도 황당한 상황에 자기가 죽은 것인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려고 하지만 맥은 세 명의 하나님과 이끌릴 수 밖에 없는 대면으로 한 꺼풀 한 꺼풀 자신을 직면해가며 치유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파파 하나님과는 차도 마시고 요리도 같이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아무 죄 없는 막내딸이 죽어갈 때, 자신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 동안 씨름하고 놓지 못했던 분노를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파파 하나님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공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로, 그리고 그 눈빛으로 맥을 진정시킨다. 감정의 분출로, 가시지 않은 분노의 폭발로 경계를 넘어 멀어져만 가려고 할 때 세 분 하나님은 절묘하게 치유의 길로 맥을 인도한다.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사라는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맥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지 알게 한다. 형클어진 정원이 바로 맥 자신의 내면이었던 것이다. 그 정원은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정돈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

성자 하나님 예수는 맥의 믿음을 도와주며 그를 지혜의 길로 안내한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맥은 자신의 분노와 아픔이 스스로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절정의 순간에 파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폭포 너머로 천국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막내딸을 한 발치 떨어져서 바라보고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 그의 영혼은 이제 고비를 넘어 평안으로 흠뻑 물들게 된다.

이제 맥이 정리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딸의 시신을 찾아 깨끗한 천으로 싸서 자신이 정돈했던 내면의 정원에 묻고, 세 분 하나님과 함께 슬프고도 행복한 장례를 치룬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묶어왔던 아버지와의 기억들과 깊은 상처들을 세 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영을 만나 서로 용서해주는 눈물의 시간을 보냄으로 치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맥은 결정을 해야 했다. 그 오두막에 남아 천국으로 올라가 막내딸 미시와 함께 살아갈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아있는 가족들과 재회할지를..... (맥은 사실 40톤 트럭과의 충돌사고로 며칠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게 된 것이리라) 그의 선택은

남아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 받는 존재이며, 자신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결정과 행동이라도 이 세상을 선택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맥은 서슴치 않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로 정한 것이다.



병상에서 눈을 뜬 맥. 현실에서 그는 그 오두막에 다녀오지는 않았다. 출발하고 바로 사고가 났고 그 주말에 병상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 가족들과의 재회는 잔잔한 감동의 또 다른 회복이었다. 특히 막내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큰딸 케이트의 치유와 관계회복은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원래 신앙심이 더 깊었던 그의 아내 낸은 그의 이야기를 다 믿어주고 누구보다도 그의 변화를 기뻐한다. 해피엔딩이다. 맥은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하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다.

결국 영화는 치유와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 하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앞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 더 나아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탄탄한 구성과 세밀한 소재들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더욱 감동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것은 이 한편의 영화가 그 어떤 영화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영화답다는 사실이다. 영화를 본 첫 소감은..... 좋은 영화구나. 이런 기분이었다. 실화 같은 한 편의 동화라고나 할까? 하지만 국내에서 영화의 흥행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다. 관객 수가 10만을 못 넘겼던 걸로 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영화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등장하고 폭력과 섹스물로 넘치는 세태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마냥 생수를 만난 듯한 영화였다고 하면 너무 오버한 것일까?^^ 특별히 주인공 맥과 파파를 연기한 샘 워싱턴(아바타 주연)과 옥타비아 스펜서(히든피겨스 주연)는 영화의 깊이를 더해 주는 명연기를 펼쳤음에 틀림없다. 이들 연기자들이 등장할 때까지 이 영화는 그 제작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감히 추측해본다^^ 그 이외에도 사라유, 아내 낸, 그리고 막내딸, 큰딸 역의 아역들 모두 사랑스런 배역을 감동적으로 연기해주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인간 타락 이후 계속 되어 왔던 가장 목소리 높은 질문들이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할 지라도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이 영화를 통해 해소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이런 멋진 영화가 많이 많이 제작되고 상영되어 이 악한 세상에 선했던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글쓴이:김종영, 편집:이경주)

BEE 소식

- 11월 4일 "찾아온 사랑을 찾아 - 호서" 현장 답사를 갑니다. 그 전에 10월 30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며 호서 지방에 찾아온 그들의 사랑을 돌아보고,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